

# “상생 정치로 국민에게 희망달라”

##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국회정각법회서 당부

### 승승대, 도서관 건립 예산 50억 확정

승가학원 이사회의에서 2010년 법인 예산 24억 3500만원과 학교 예산 90억 1470만원이 확정됐다. 또, 학교 예산 중 절반 이상인 50억원을 중앙불교도서관 건립에 사용하기로 했다.

승가학원 이사장은 2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87차 이사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의했다.

회의에서 승가대 기획실장 김응철 교수는 “올해 중앙승가대 예산은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예산 편성 기초를 설명했다.

학교 예산 90억 원 중 수입은 종단 예산 18억 8000만원, 기부금 12억여 원, 등록금 수입 18억여 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적인 이사 5인에 대한 선임도 이뤄졌다. 이사회는 교육원장 현을 스님을 비롯해 개방형 이사로 총무부장 영담 스님, 기획실장 원담 스님, 교육부장 법인 스님을 선임했다.

조종섭 기자

세종시 문제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정치권에 상생과 순리에 따른 정치를 펼칠 것을 주문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인년 국회정각회 신년법회’에서 “최근 정쟁으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 정각회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상생의 정치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심(公心)이다. 공심이 사심(私心)으로 변하면 경쟁에서 떨어지기 마련이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청렴성을 잃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또 스님은 “그동안 종단이 다름으로 인해 불자들은 자부심과 자신감을 상실했다”며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불자후보에는 종단이 여야를 막론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병국 정각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현안에 따른 여야 갈등을



이날 총무원장 자승 스님(왼쪽 두번째)과 정각회장 최병국 국회의원(왼쪽 첫 번째) 등 사부대중은 상생과 소통의 정치를 발원했다.

불이심(不二心)으로 극복해야 한다”며 “정각회원들은 보시와 봉사의 정신으로 이타행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이어 정각회, 국회직원불자회, 보좌관 법우회원들이 모금한 ‘아이티지진참사’ 성금 1만불이 자승 스님에게 전달됐으며, 강창일 정각회 부회장의 국운운장을 기원하는 발원문 낭독으로 법회가 마무리됐다. 법회에 앞서 자승 스님은 국회 정각선

원을 참배했다. 법회 후 법회동참자들은 의원식당에서 조찬을 함께 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기획실장 원담 스님, 사서실장 경우 스님, 기획국장 만담 스님 등 조계종 스님들과 김의정 중앙신도회장, 이연숙 조계사 신도회장, 하복동 공불련 회장, 조창희 문광부 총무실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각회 국회의원 중에는 최병국·안홍준·강창일·이계진·최재성·권선택·최재성·김태환·김해성·배은희·송광호·이진복·이해봉·임동규·정갑윤·정해결·조문환·김재경·이은재·신명철 국회의원, 박계동 국무사무처장이 참여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news.com

# 東大 이사 선출 갈등 불씨 되나

## 종관위 결정에 월정사 “기여도 인정하라” 반발

종림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일관, 이하 종관위) 회의에서 동국대 이사 후보에 종책모임 스님들이 후보로 결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종관위는 2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79차 회의에서 동국대 이사 임기만료 예정인 영배 스님(3월 만기) 후임으로 법해·정호 스님을, 정년 스님(5월 만기) 후임으로 선각·종호 스님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배 스님 후임으로 법해 스님(서울 개운사 주지) 정호 스님(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정우 스님(양산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전 통도사 주지)가, 정년 스님 후임으로는 도안 스님(영월 법흥사 주지) 현각 스님(원주 성불원 주지) 조계종 초심호계위원 선각 스님(함천 해인사 주지) 종호 스님(중앙종회의원)이 후보로 올랐다.

종관위 스님들은 이견 끝에 투표로 종회에 상정될 후보를 선출했다.

지금까지 동국대 이사는 동국대학 설립시 삼보장재를 보냈던 교구 분사별 지분이 보장돼 왔지만, 이날 이사 후보 선출은 통도사 지분(영배 스님)과 월정사 지분(정년 스님)과는

무관하게 이뤄졌다. 특히 선출된 이사회 스님들이 모두 보림회(법해·종호 스님)와 화엄회(정호·선각 스님) 소속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중앙종회와 동국대 이사회에서 어느 계파의 누가 이사로 낙점될지에 따라 향후 조계종 정치 판세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동국대 이사회에서 지분을 잃은 통도사와 월정사 문중과 종단 간 갈등도 예상된다.

한 종회의원 스님은 “이번 종관위의 결정으로 제33대 집행부 탄생 시킨 종단 내 계파간 연대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동국대 이사후보에 월정사 스님이 배제되자 당장 월정사 스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월정사 스님들은 성명서에서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는 제33대 집행부가 출범할 때 합리적인 이유와 대종적 동의 없이 기존의 합의와 불문율이 무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동국대 이사후보 선출에 출자 사찰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종섭 기자

# 토지처분금 교구본사에서 활용

## 교구본사 주지회의의 요청 따라 관련법 개정

조계종 총무원회는 제33대 집행부들이 첫 전국 교구본사 주지회의를 2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9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건 △사찰토지 처분금 활용 건 △사찰중등급 및 분담금 조정 건 △조계종 4개년 발전계획 관련 건 △국립공원 제도 개선 관련 건 △승가교육 진흥위원회 보고의 건 등 상정된 14개 안건 가운데 ‘사찰 토지처분금의 효과적 활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사찰 토지처분금은 교구본사별 토지처분금 총액과 상관없이 총무원이 중앙에서 관리·분배토록 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교구본사가 총무원과 공동 예치해 직접한 뒤 해당 교구에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변경됐다.



제33대 집행부 첫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각 교구본사는 종책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는 교구본사별 빈부 격차 해소 및 종단 목적불사 재원을 마련한다는 본래 취지에서 크게 후퇴해 무분별한 토지처분을 막는 수준에서만 그치게 됐다.

한편, 총무원회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방향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종법 개정안을 마련해 3월 8일 중앙종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 10·27법난 명예회복 나서

## 천태종, 정산 스님 기자회견 열어

천태종이 그동안 묵인 대처해 온 10·27법난 피해 명예회복에 나섰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2월 25일 천태종보 금강불교신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27법난으로 실추된 종단 명예회복에 진력할 것을 밝혔다.

천태종은 법난 당시 종정 대종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총무부장 등 종단 주요직 스님들이 모두 연행되는 수모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태종은 이 중 당시 교무부장인 탁산 스님과 비구니 명성 스님은 현재까지 투병중이라고 밝혔다.

정산 스님은 “당시 종정 스님을 비롯한 총무원장, 총무부장, 재무부장 등 11명이 연행돼 28일 동안 보안사에서 수모를 당

했다. 그 후 석암 총무원장이 1년 실형을 받는 등 상징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천태종의 이번 명예회복 신청은 정부의 공식접수가 3월 17일 마감됨에 따라 천태종 피해사실이 당시 조사 내용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결정됐다. 이에 천태종은 1월 23일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 영담)에 ‘10·27법난 피해구복소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천태종이 공개한 소청서에는 △피해당사자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 △법난극복법회 정파관계자 참여 및 재발방지 약속△법난극복 불망탑(비) 조성 지원 △법난극복 사회복지관 건립지원 등의 요구사항이 명시됐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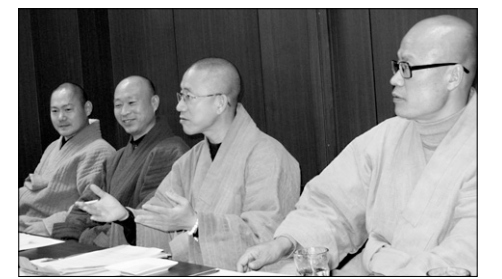
# “원종 스님 기득권 버려야”

## 관음사 사태, 승언 스님 등 입장서 발표

최근 수년간 송사에 시달려 온 제주 관음사가 간담회에서 前 주지 스님 상좌 ‘도독놈’이라 비판한 것에 승언 스님 등 관음사 前 주지 측 스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종회의원 승언 스님과 김해성조암 세등 스님, 천축사 유방·해경 스님은 2월 25일 종로구 모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빈된 종원 스님(관음사 前 주지) 상좌스님들의 입장을 밝혔다.

승언 스님은 “관음사 사태로 은사인 종원 스님은 법빈의 징계를, 나머지 소인자 등 스님 8명은 공관정치 10년의 중징계를 받았다”면서 “별문지화를 당해 문중이 종비박산 났음에도 관음사(원종 스님) 측이 사실



왼쪽부터 유방·해경·승언·세등 스님.

무근의 발언으로 문중까지 비판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스님들은 “당시 관음사 측 간담회에서 문중스님들이 ‘도독놈’이라 거론한 것은 관음사 땅을 팔기 위한 명분 쌓기 위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종 스님이 물러나야 관음사 삼보장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남겼다.

조종섭 기자

# 사단법인 대한불교 일승종 제11대 종정 능허혜정 예하·제15대 총무원장 월공정태 대종사 취임

## 제11대 종정 능허혜정 대종사

기획부종정 해허혜득 대종사      승정부종정 진허혜인 대종사

### 총무원장 월공정태 대종사

- |           |           |           |
|-----------|-----------|-----------|
| 기획원장: 문공  | 승정원장: 월하  | 승보원장: 혜성  |
| 규정원장: 경보  | 포교원장: 법성  | 교육원장: 봉덕  |
| 총무부원장: 동화 | 승정부원장: 법정 | 승보부원장: 정수 |
| 기획부원장: 거암 | 포교부원장: 도성 | 교육부원장: 정휴 |
| 재무부장: 자운  | 승보부장: 용기  | 승정부장: 혜광  |
| 기획부장: 정개  | 규정부장: 정치  | 사회부장: 정법  |
| 총무부장: 원명  | 호법부장: 보광  | 교화부장: 선주  |
| 자료부장: 광명  | 교무부장: 여연  | 총책부장: 법천  |

### 원로원장: 범공정법      원로부원장: 법일, 정덕

원로의원: 법륜, 용법, 인환, 혜암, 선재, 대허, 무장, 불광, 묘암, 남강, 범공, 혜인, 묘정, 연화, 일성, 운봉, 혜월, 각화

### 중앙종회의장: 일공길상 대종사

종회부원장: 봉덕, 법륜  
의원: 청감, 월암, 범보, 원봉, 일조, 정도, 만공, 대성, 정관, 경덕, 탄공, 흠공, 천공, 시공, 대원, 리공, 원공, 자운, 무공, 흥공, 연각, 명공, 소공, 서공, 정공, 도공, 건공, 묘공

- |                      |                |               |                |
|----------------------|----------------|---------------|----------------|
| 교구총무원 - 강원교구총무원장: 법일 | 대구경북교구총무원장: 문공 | 경남교구총무원장: 여관  | 광주전남교구총무원장: 효정 |
| 부산교구총무원장: 법담         | 울산교구총무원장: 거암   | 재일본교구총무원장: 곡우 |                |

